

독어의 표준발음에 대한 고찰

정동규(경원대)

0. 머리말

두말할 필요도 없이 독어의 서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 지침이 되는 것은 Duden 정서법 사전이다. 그 이유는 비록 독일의 경우 정서법적 권위가 국가의 공적 기관을 통해 주어지지 않았지만, 1955년 연방독일 각주의 문교장관회의의 Kultusministerkonferenz der Länder 의 결의에 따라 Duden에는 ‘Auf der Grundlage der amtlichen Rechtschreibregeln’라는 언급이 주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Sauer, 1988, 참고). 게다가 국가에 의한 이러한 反官的 지위 부여 이외에도, 이 정서법 사전은 최초의 편집자 K. Duden 이후로 줄곧 정서법적 권위의 획득과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 모든 독어사용자로부터 오늘날 그에 상응하는 지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언어의 표준화에 해당하는 표준어를 언급하는데 있어서는 서법뿐만 아니라 소리 즉 발음에 대한 것도 함께 고려되어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이제 독어의 발음에 대한 의문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독일 사람과 개인적인 대화를 할 때 사용하는 발음과 예를 들어 텍스트를 강독하거나 문법 강의에 단어나 문장을 전달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발음은 어떠해야 하는지? 또는 독어 발음에서 표준으로 삼아야 할 기준은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오랫동안 우리는 알파벳을 통해 숙지한 독어발음이 단지 문자와 발음기호의 혼동에서 오는 착시현상에 불과하고, 생활을 통해 익숙해진 발음도 단지 해당 언어집단에서 소통을 위해 사용되는 잠정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종종 간과하고 있다. 즉 이 중 어느 것도 발음상의 표준으로 삼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며, 후자의 발음을 언어교육에 있어서 마땅히 따라야 하는 좋은 발음이라고 서슴없이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의 실정을 잠시 돌이켜 보면, 많은 독어교육자들이 낯선 외래어

* 논문에 대해 세심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사를 드립니다.

이외의 일반적인 독어 단어의 발음을 사전에서 찾아 확인하는 것은 아주 오래 전에 잃어버린 습관일 뿐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Himmel이란 단어의 발음은 이미 1962년(Duden Aussprachewörterbuch1) [ˈhɪməl]을 거쳐 1974년(Duden Aussprachewörterbuch2) [ˈhɪm]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독어발음은 더 이상 음성학이나 음운론의 주제로만 한정해서 관찰할 것이 아니라 서법상의 독어정서법과 마찬가지로 표준발음이라는 입장에서 이에 대한 규범적 고찰이 이루어지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독어 표준발음이라는 주제가 선택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대부분의 독어교육자들이 독어 발음에 대해 논의할 때 늘 거론하는 Siebs가 독어 발음의 통일화 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온전히 밝히고, 둘째 독어교육—외국어를 배우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은 발음이다—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육자가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독어 발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서법과 발음의 통일화 내지 규범화 작업이 지닌 특성 그리고 독어발음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자주 인용되는 Th. Siebs의 규정 및 규범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하여 1962년 이후 Duden 발음사전에 규정된 독어 표준발음의 성격을 밝혀보려고 한다. 이때 표준발음을 Duden 발음사전에 입각해서 고찰하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Duden이 표준독어라는 입장에서 정서법뿐만 아니라 발음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권위를 지니고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독어 표준 발음에 대한 몇몇 가치 있는 연구—허창운(1983), 정완식(1999) 등—가 이루어졌으나, 이 연구에서는 표기와 발음 그리고 발음원칙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독어 표준발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접근하려고 한다.

1. 서법과 발음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인간의 정보저장 행위가 개인의 기억력에 의존하던 시대로부터 문자에 의한 정보저장 시대로 이전해왔다. 이 과정에서 효과적인 저장 수단으로서 문자가 각 언어공동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다. Asher(1993: 216)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감정은 말 speech을

통해 진술되며, 말로 표현된 것은 문자로 기록된다. 이와 같이 실질 세계에 있는 사물은 마음속의 감정으로 상징화되고, 다시금 말에 의해 상징화되는데, 이때 말은 다시 글에 의해 표현된다. 따라서 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지만 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이것은 어떤 대상이나 현상의 상징체로서 하나의 관념이 재차 구어에 의해 상징화되고 그 후 고도의 추상성을 본질적 특징으로 하는 문어로 정착하는 과정을 언급한 것으로, 자연적이고 일차적인 언어 차원인 구어가 인위적이고 이차적인 문어(Assmann, 1983: 175)를 통해 사회적으로 저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기록을 통해 문어를 장기간 보존하고 반복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기록하는 과정 이전이나 이후에 일정한 규범화를 통해 기록 장치에 대한 통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리를 추상화한 문자체계의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외적 그리고 양식적 측면에 해당하는 문어에 대해서는 글을 쓰는 사람에게 허용 내지 요구된 규범으로서 서법이 사회적 강제 의 형태로 작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매우 용이하다.

그러나 문자가 만들어지고 소리가 글로 기록되기 시작한 한참 후인 15세기에 와서야 비로소 서법에 대한 논의가 유럽 각국에서 구체화된 것은 그동안 다양하게 규범화된 서법들이 해당 언어의 통일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다양한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는 언어 자체의 문제 보다는 사회의 발전이 초래한 결과에 기인하고 있다. 종교로부터 인간으로 사회의 중심이 이동되고, 소수의 사회집단이 독점적 또는 배타적으로 문어의 소유 및 이용에 관여하던 시대로부터 문어가 일반 대중의 공동재로 거듭나기 시작하면서 문어는 이제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유럽사회의 사회적, 정치적 다원화로 말미암아 정치 세력이 국가별로 결집되던 인문주의 시대에 언어들은 각국의 정치적 목적 즉, 민족어를 통해 민족 또는 국가의 정체성을 도모하려는 언어 외적 목적을 도움으로 해서 급격하게 표준화 내지 통일화의 길로 나아갔다. 이때 언어의 통일화 작업은 기본적으로 구어에 대한 표준 문어의 형성이라는 경향을 특성으로 지니고 있었는데, 이에 따라 오랫동안 주로 구어의 차원에서만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던 독어도 점증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문어로서의 규범화와 통일화 작업을 겪게 되었다(독어정서법의 형성과 발전에 대해서는 정동규, 1997 참고). 이때 서법의 이상으로 전면에 나타나게 된 요구가 바로

‘Schreibe, wie du sprichst!’이다. 예를 들어 특히 G.Michaelis와 F.W.Fricke가 19세기 독일에서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였는데, 그들은 만약 현재의 문자체계가 변화된 소리를 반영하는데 부족한 경우, 심지어 새로운 철자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Nerius, 1992: 241). ‘말하는 대로 쓰라!’는 서법상의 요구는 곧 ‘쓴 대로 말하라! Sprich, wie du schreibst!’라는 발음상의 요구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모든 소리에는 각각 하나의 표현, 그리고 모든 표현에도 각각 하나의 소리만이 대응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만약 이렇게 된다면 정서법 사전은 곧 발음사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¹⁾ 그러나 글과 소리의 완전한 일치를 전제로 하고 있는 이러한 언어사용상의 요구가 실제로 언어에서 관철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오히려 각 언어들은 다음처럼 동음이의어, 동철이음어, 고유명사, 외래어의 표기와 발음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Duden, 19743: 9):

- 1) 동음이의어: Trots, Trotts, trotz; Lok, logg!, lock, Log 등.
- 2) 동철이음어: Loge [ˈlɔgə](Log의 복수), Loge [lɔ:ʒə]; Herojn, Heröjn(Heldin); rast!(< rasen). rast!(< rasten) 등.
- 3) 외래어: Zär [tsa:ɐ], Gaze [ga:zə], Quiz [kvɪs], Pincenez [pɛs'ne:] 등.
- 4) 고유명사: Meier, Meyer, Maier: Lord Home [lɔ:d hju:m] 등

모든 문자는 어느 정도 넓은 소리영역을 지니고 있는 상징에 불과하다. 게다가 오늘날 독어를 표기하는데 사용되는 알파벳도 원래 독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Karl 대제 시대에 라틴어로부터 전이된 것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라틴어에 없는 소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힘들게 몇몇 문자를 결합사용하거나(ch, sch) 변형시켜(ä, ö, ü) 사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언어의 문자화는 소리의 섬세한 뉘앙스를 담지 못한 채 오히려 귀의 무감각과 발음의 훼손

1) 예를 들어 Duden 사전의 경우 1880년 초판을 발행된 이후 12판까지는 정서법사전에 포함된 어휘색인이 오로지 올바른 표기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발음기호에 의한 발음표기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1949년 13판부터는 외래어뿐만 아니라 통일적 사용을 위한 규정화가 필요한 몇몇 독어 단어에 대해서도 발음기호에 의한 발음 표시가 첨가되었다. 그 후 1962년부터는 독립적인 발음사전을 통해 발음에 대한 통일적인 사용이 권장되었다.

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시금 새로운 규범화와 발음 교육을 통해 잃어버린 소리의 다양성을 찾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Siebs Deutsche Hochsprache, 1961: 19).

이상과 같이 문어 차원에서 나타나는 서법상의 문제는 발음에 대한 통일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비해 오히려 작은 어려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발음의 규범화 과정에서 야기되는 어려움은 한편으로 구어의 개인적, 임의적, 순간적 발화라는 특징,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정보저장이 아니라 정보 전달 또는 즉흥적 소통이라는 구어의 기능적 목적에서 비롯된다. 그 결과 문어의 차원에서 표준적 독어가 17세기 이후 가능한 한 통일적으로 글을 쓰는 것을 목표로 발전해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독일의 각 지역에서는 동일한 의미의 단어를 상이하게 발음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동일하게 써어진 철자조차 상이하게 발음되는 경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소위 복수중심성이라고 불리어지는 독일 문화의 특수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어에 대해서는 파리, 영어에는 런던, 그리고 덴마크어에는 코펜하겐이 문화적, 언어적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는 구심점이었으나, 독일에는 이러한 중심지가—있었다 해도—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음소의 변화나 방언적 특성에 대한 표시로 간주되는 구어에서의 변이형은 당시 독일에서는 글 쓰는 사람에 의해 철자 차원에서 그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전래된 서법 전통에 따라 글쓰기가 이루어짐으로써, 서로 다른 소리가 동일한 철자로 표기되는 현상이 오히려 낫선 것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바른 소리를 전제로 하는 오랜 서법 전통인 ‘소리대로 글쓰기’라는 서법 원리에 덧붙여 ‘쓴 대로 발음하기’라는 극단적인 발음 원리가 나타나기도 했다. 독어 발음에 나타나는 이러한 복수중심적 양상이 방언의 보호라는 문화적 차원에서 독일의 자발적 선택에 기인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 분명한 것은 통일적 발음을 위한 노력이 적어도 서법의 통일화 작업과 비교해볼 때 예를 들어 18-19세기의 정치적 목적과 같은 언어 외적 목적을 통해 추진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통일적 발음에 대한 규범화 필요성에 대한 동인은 Duden 발음사전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독어교육 그중에서도 특히 외국인의 독어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Duden, 1990³: 5).

이제 우리가 종종 언급하는 ‘발음’ 또는 ‘발음에 대한 규정’이라는 의미에

대해 잠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언어는 본질적으로 소리와 의미의 체계이다. 그런데 소리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철자를 통해 문자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철자와 소리의 불완전한 대응 관계는 다시금 철자로부터 올바른 발음으로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따라서 여기서의 발음규칙이 지향하는 바가 문자 이전 다시 말해서 문자를 고려하지 않은 순수한 소리 차원을 언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씌어진 문자를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대한 것인지 하는 문제가 나타난다. 이것은 매우 근본적이고 또한 대답하기 곤란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문자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언어에서 발음의 문제가 제기된 시점을 고려해볼 때 비교적 쉽게 대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독어에서 발음 문제를 논의하는 출발점에서 자주 인용되는 괴테의 『Regeln für die Schauspieler』는 1803년 출판되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시기보다 200년 전인 16세기부터 독일에는 전독일적 통용성을 지닌 통일적 표준독어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말미암아 서법의 통일화 작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 많은 언어자료가 문자의 형태로 기록 또는 발화되었으므로, 이 시기에는 독어뿐만 아니라 모든 문명화된 언어에서 문자를 고려하지 않은 소리의 차원만을 염두에 두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표현을 지역과 사회적 계층을 초월하여 동일하게 표기하려는 노력이 소위 정서법을 통해 이루려는 목표였다면, 이렇게 표기된 표현들에 통일적 발음을 부여하려는 노력이 바로 표준발음을 향한 규정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논의하려고 하는 발음 또는 발음규칙이란 소리의 저장이라는 측면에서 오로지 소리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철자로 씌어진 표현을 포함하는 개념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Siebs의 무대발음

독일에서는 16-19세기에 걸쳐 서법의 통일을 위한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문어 차원에서의 통일화 작업은 상당한 진전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19세기에든 여전히 소리의 형태와 억양은 개인적, 계층적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상이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 발음과 억양에서의 방언적 지역성

을 회피하고 독어발음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노력은 교양 있는 청중들이 독어를 사용하는 곳에서 가장 먼저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고전주의자들의 독일 무대였다. 즉 레싱의 Nathan과 괴테의 Iphigenie와 같은 작품들은 하나의 순수한 소리 또는 통일적인 발음을 필요로 했고 그것은 지역을 초월해서 다른 모든 곳에서 모범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어야 했다. 그 결과 앞서 언급한 Goethe(1803)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다. “만약 비극적 대사의 중간에 지역주의가 끼어든다면 최고의 극적 해석을 이끌어내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고 나아가 이것은 곧 관객의 귀를 모독하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명배우가 가장 먼저 그리고 반드시 배워서 갖추어야 할 것은 그가 방언의 모든 그늘로부터 벗어나 완전하고도 순수한 발음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어떠한 지역주의도 무대에서는 불필요하다. 무대에서는 예술 그리고 학문을 통해 형성되고 다듬어진 순수한 독어만이 오로지 넘쳐나야 한다.”(Siebs Deutsche Hochsprache, 1961: 2, 재인용).

이와 같이 순수한 독어에 대한 요구는 무대에서 시작되었고, 게다가 독일제국의 통일과 함께 무대의 언어가 국가의 표준적 토대로 고양됨으로써 무대에서의 발음이 특별한 주목을 받아 자주 의식적으로 장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 독일에서는 완전하고 순수한 발음이 어떠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규범은 표준독어라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여러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 무대에 없었다. 이러한 규범에 대한 욕구는 19세기 지속적인 언어적 통일화 과정을 통해서야 비로소 여러 분야에서 각성에 이를 수 있었고, 언어학의 발전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 내지 실현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언어 연구가 살아있는 소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결과 음성학이라는 학문이 만들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구어의 기술과 표준독어의 발음에서 통용되는 규칙들의 체계적인 규정이 따라올 수 있었다.

Theodor Siebs는 1896년 Deutsche Bühnenverein과 Versammlung Deutscher Philologen und Schulmänner 등에 소속된 극장대표자 및 독어연구자들과 협력하여 독일 무대발음의 규정화 작업에 진력하게 되었고, 이 목적을 위해 소집된 회의에서 제안된 것을 토대로 하여 1898년 『Deutsche Bühnenaussprache』 첫판을 발행하였다. Siebs의 “일반적인 원칙과 목표”와 Eduard Sievers의 “발음 교육에서의 음성학의 의미”에 대한 강연 내용으로 시작되는 이 책은 제목에

서 알 수 있듯이 무대에서 출발하여 일차적으로 무대에서의 적용을 목표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무대에서 관례에 따라 사용되던 것들을 엄밀하게 확정하고, 나아가 수집된 자료들을 토대로 상호비교를 통해 통일적인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였다. 즉 Siebs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것 보다는 오히려 현존하는 용례를 설명하고 규범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주요한 몇몇 무대나 극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발음상의 관습들이 그대로 규범으로 고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이것은 무대에서 배우들이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지침이 될 수 있었고, 이 무대발음은 언어적으로 고양된 예술작품을 말하거나 예술가곡을 부를 때 적용되는 발음규정인 동시에, 고양된 언어를 예술적으로 또는 예술답게 발음하고자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발음으로 통용되었다. 이러한 무대발음의 본질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Duden, 1962¹: 28):

- 1) 무대발음은 이상적인 규범이다. 실질적으로 발화되는 언어의 혼란스러운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어떤 요구도 하지 않는다.
- 2) 무대발음은 초지역적 특성을 지닌다. 즉 무대발음은 어떤 지역적 발음형태도 지니지 않는다.
- 3) 무대발음은 통일적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예외적인 것은 배제하거나 최소화한다. 예를 들어 politisch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po'li:tiʃ], [po'litʃ], [pə'li:tiʃ], [pə'litʃ], [pɔ'litʃ] 등의 발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po'li:tiʃ] 하나로만 규정하고 있다.
- 4) 무대발음은 문자에 근접해 있다. 특히 외래어의 경우 발음기호를 통해 광범위하게 규정된다. 예를 들어 Polyphyllie [polyfɪ'li:]와 Polyphylic [polyfɪ'li:]가 상이하게 발음되는 것은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이 그렇게 상이하게 발음해서가 아니라 이 단어들이 각각 다르게 글자로 씌여지기 때문이다.
- 5) 무대발음은 명확하다. 무대발음은 소통발음²⁾과 엄격히 구별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absetzen의 bs와 Kapsel의 ps 발음이 소통발음(absetzen [ˈapzɛtsən], Kapsel [ˈkapsl])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무대발음(absetzen [ˈaphzɛtsən], Kapsel [ˈkapsəl])에서는 명백한 차이를 보인다.

2) Umgangslautung의 번역은 소통어, 교제어, 일상어 등으로 번역되는 Umgangssprache에 비추어 소통발음, 교제발음, 일상(어)발음 등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Siebs는 예술적인 성격을 지닌 무대나 문학 강연뿐만 아니라 교회나 학교의 강단에서의 교양 있는 연설 등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공적 연설에서 발음의 보호와 통일화를 기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예술언어에서 지배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통일성을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도록 만들어서 무대어를 표준어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특히 무대에서 배우들이 사용하는 각 표현들은 발음부호를 통해 표시되었고, 실용성이라는 취지에서 실제 사용을 위한 규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사용이 불명확한 곳에서는 조정을 시도했다. 이때도 독일 무대발음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대원칙 아래에서 “편안하고 오성에 의한 연설”에서 나타나는 음가가 유일한 원칙이 되었다(Siebs Deutsche Hochsprache, 1961: 17). 한편 보편타당한 것을 가려 내어 언급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그때그때의 감정이나 분위기의 영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한편 그동안 표준문어가 본질적으로 Ostmitteledeutsch를 근간으로 고지독어의 발음 경향을 지니고 있었던 반면, 발음에 있어서는 북부 저지독어의 음가가 선호되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무대를 통해 이러한 통일적 발음을 전독일 지역에 유포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오히려 학교와 언어보호를 위한 단체들의 노력을 통해 올바른 발음에 대한 요구가 여러 계층에서 팽배해졌다. 비록 이 규범이 교육 기관을 통해 사용 범위를 확장해간 것은 사실이었으나, 당시의 전파 속도는 글과 소리의 차원에서 독어를 통일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시대적 요구에는 못 미쳤고, 라디오가 등장하여³⁾ 이 발음 규범이 표준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에야 실질적인 통용성을 지니면서 전체 독일에 광범위하게 관철되었다. 게다가 1970년대 초까지 Duden을 비롯한 대부분의 정서법 내지 문법서에서는 Siebs 규범이 표준발음으로 채택되어 독어는 드디어 구어 차원에서도 일정한 통일성을 기하게 되었다.

3) 19세기말 소리를 전기신호로 바꾸는 마이크로폰이 개발되었고, 1906년 미국에서 신호를 증폭하고 전송하는 진공관이 발명 그리고 이어진 수신기의 개발과 보급 이후 영국 1920년 프랑스 1921년, 독일에서는 1923년, 우리나라에서는 1925년 대중을 대상으로 한 방송이 시작되었다. 두산세계대백과 사전, 1996, 참고.

3. Duden의 표준발음

정서법이란 표기의 동일성과 보편적 통용성 그리고 규범으로서의 사전이라고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문어 즉 표기와 관련된 것이다. 이때 소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표기는 그 자체로서 시각언어로 기능하기도 하지만 주로 소리로 재차 환원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소리와 관련해서 제기될 수 있는 의의는 첫째 왜 소리대로 표기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 왜 표기대로 발음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언급했던 ‘소리대로 쓰기’와 ‘쓴 대로 말하기’에 대응되지만, 사실상 이 두 가지 과정 사이에는 시점의 차이뿐만 아니라 소리와 관련하여 각각 철자에 의한 추상화와 철자로부터의 구체화라고 하는 환원 방식상의 엄연한 차이가 존재한다. 게다가 ‘표기란 소리의 불완전한 표상에 불과하다’(Bloomfield, 1933: 11)는 언급에 비추어볼 때 불완전한 표기로부터 소리의 통일화를 추구하는 일은 이미 서법의 통일화 작업에서 겪었던 어려움 이상으로 힘든 과정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더욱이 서법에서 이루어지는 강제력으로서 규범화는 문어를 통해 일정한 기간을 두고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발음의 규범화는 소리의 특성상 강제할 수 있는 시간과 방식이 서법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개별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독어가 표준어로 나아가는 길에서 정서법의 통일화 작업에 비해 표준발음의 설정이 늦어진 매우 중요한 이유의 하나라고 판단한다. 일찍이 Duden 정서법사전에서도 발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대부분 외래어의 발음에 관한 것이었고, 포괄적인 독어의 발음문제가 다루어진 것은 1962년 Duden 발음 사전 — 2000년까지 4권이 출판되었음 — 이 출판된 이후이다.

자신의 고유한 문자 체계를 스스로 만들어 소리를 문자로 표기하는 우리 국어에서 조차 소리와 철자의 불일치는 다양한 발음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물며 고유한 알파벳 체계 없이 다른 언어의 매체를 이용하여 소리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독어에서는 여러 가지로 상이한 발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독어의 발음을 몇 가지 부류로 나누어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단 독어의 발음은 정서법처럼 규범화가 되어있는 발음형태와 그럴만한 필요가 없거나 결코 가능하지 않아서 규범화가 되지 않은 발음형태로 구분된다. 전자

에 해당하는 발음들은 소위 규범발음 Hochlautung, 그리고 후자는 비규범발음 Nichthochlautung으로 불리는 것으로,⁴⁾ 다시 무대발음과 표준발음, 그리고 소통 발음 Umgangslautung과 과잉발음 Überlautung이 각각 전자와 후자에 속한다. 이때 규범발음은 발음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정서법처럼 규범화된 것을 의미하며, 비규범발음은 일상적 발화에서 어느 정도 지역적 또는 심지어 방언적 특성을 지니기도 하면서 주로 즉흥적 발화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먼저 규범발음에 대해 살펴보자.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Duden에서 발음의 표준화 작업이 처음으로 결실을 맺은 것은 1962년 발음사전이다. 그러나 이 발음사전에서는 Siebs의 무대발음 이후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환경의 변화가 독어 발음에 적지 않은 영향과 변화를 초래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새로운 발음규정을 유보한 채 무대발음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19세기말 Siebs가 무대발음을 규정하는데 있어서는 무대에서의 사용이라고 하는 오로지 하나의 목적에만 부응하면 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한 규범을 만드는 것에 만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것이 바뀌었다. 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그동안 많이 증가한 반면, 방언 사용자의 수는 많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커다란 변화는 과거 극장이 지녔던 문화적 지위는 오늘날 영화나 방송 등으로 넘어갔다. 그 결과 라디오나 전화국, 우체국, 철도, 학교 등에서는 발음의 규범화 작업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변화된 상황은 이제 과거의 무대발음을 포기하고 오늘날의 새로운 이해 집단의 요구에 부응하는 규정을 제정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새롭고 만족할만한 새로운 규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냐는 논의를 차치하고라도, 극장이 오늘날 구어를 예술로서 가장 잘 보호 내지 장려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오늘날 예술과 비예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 불일치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어목록의 발음은 무대발음에 따라 정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인다.” (Duden, 19621: 27)

4) Hochlautung을 표준발음으로 번역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규범화가 가능하냐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사용한 개념이고 Duden 발음사전 3판부터는 Genormte Lautung과 동의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규범발음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Hochsprache, Hochlautung이 각각 Standardsprache, Standardaussprache와 동의어로 사용될 때에는 표준어 또는 표준발음으로 번역할 것을 권장하고자 한다.

따라서 Duden 사전이 정서법적 권위를 가지고 발음을 규범화하려 했던 최초의 시도는 19세기 말 최초의 정서법 사전을 편찬할 때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적용되던 규정 즉 Siebs 규정을 일단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언어 환경의 변화는 이미 종래의 규정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Siebs 규정을 통해 독어발음을 과거로 돌아가도록 하려는 어떤 시도도 정당화될 수 없었다. 이것은 곧 Duden 발음사전의 개정을 요구하게 되었고, “독어는 표기된 바와 상이하게 발음되거나 발음된 바와 상이하게 표기되는 표현들이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표기상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서법의 확립 못지않게 각 표현에 대한 발음의 규정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어떤 시도도 공식적으로 해당 표현의 발음을 유일하게 올바른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르지 못했다”(Duden, 1974: 29)는 판단을 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Duden 발음사전이 Siebs 규정을 따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이 규정을 대신할만한 발음상의 규정이 없었다는 것으로, 이것은 한편으로 이 규정이 표준독어의 입장에서 그동안 아주 중요하고도 유일한 발음규정이라는 지위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발음의 규범화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1974년 Duden 발음사전은 명확하게 무대발음과의 단절을 표명하고 있다. Siebs 규정의 발음은 처음에는 무대발음으로 불리다가 나중에는 표준발음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입장에서 볼 때 무대발음은 지나치게 과장된 발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 상황에서 보다 일반적인 사용을 염두에 둔 새로운 규범화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때 이 새로운 작업은 서법의 규범화를 통한 언어의 표준화 작업 과정과 함께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주로 정서법상의 규정을 포함하는 표준어라는 용어에 상응하여 표준발음 Standardaussprache으로 지칭되었고, 이 발음은 기본적으로 정서법과 유사한 다음의 특징들을 지닌다 (Duden, 1974: 30):

- 1) 표준발음은 언어현실에 가까운 사용규범을 따른다.
- 2) 표준발음은 초지역적 특성을 지닌다.
- 3) 표준발음은 통일성을 추구하여 가능한 한 예외적인 것을 배제하거나 최소화 한다.

- 4) 표준발음은 명확하다. 즉, 소통발음 보다는 강하게 그리고 무대발음 보다는 약하게 소리를 구별할 수 있도록 규정된다.

그러나 1974년 Duden 발음사전의 개정판에서 중전의 무대발음을 전반적으로 채택하지 않고 표준발음에 대한 규정을 새로이 설정하려고 한 보다 실질적이고도 중요한 이유는 첫째 Siebs 규정이 거의 한 세기 전의 언어상황에 입각한 발음을 대상으로 규범화된 것이고, 둘째 무대나 연단에서 운문의 낭송 등과 같은 특별한 목적을 고려한 것이며, 셋째 특히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서법이 Oberdeutsch를 중심으로 규정된 반면 Siebs의 발음규정은 북독의 발음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규범발음에 속하는 무대발음과 표준발음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제 비규범발음에 대해 살펴보자. Duden 발음사전에 따르면 비표준발음에는 소통발음과 과잉발음이 있는데, 전자는 규범발음에 비해 발음의 명확성이 미흡하고 글과의 조응성도 약하지만, 후자는 반대로 규범발음 보다 발음이 더 명확하고 그 결과 글과의 조응성도 더 강하다. 소통발음은 집이나 거리 또는 직장에서의 일상적 또는 습관적인 교제에서 주로 사용되며, 언어적 그리고 내용적으로 예를 들어 강연이나 연설과 같은 다른 언어상황에서 사용되는 발음에 비해 문어적 성격이 덜하다. 게다가 때에 따라서 소통발음은 영화나 텔레비전, 라디오 등과 같이 보다 광범위한 청중을 대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소통발음은 표준발음에 비해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며 지역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다 다양하게 계층화할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소통발음이 지닌 특징을 모두 남김없이 밝혀 제시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소통발음에 해당하는 예(/ ' 뒤의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Duden, 1974²: 61f).

- 1) gehen[ge:ən]/[ge:n]; hauen[hauən]/[haun];
hohen [ho:ən]/[ho:n]
- 2) Bad[ba:t]/[bat]; Glas[gla:s]/[glas]; grob[grɔ:p]/[grɔp]
- 3) Atem[ʼa:təm]/[a:tm]; materiell[mate'riel]/[mat'riel]
- 4) Berlin[ber'li:n]/[bɛɛ'li:n]; harr![har]/[haɛ]; Hirt[hirt]/[hret]
- 5) einig[ʼainɪç]/[ʼainik]; wenigstens[ʼve:nɪçstns]/[ʼve:nɪkstns]

- 6) Spaten[^hʃpa:tn]/[^hspa:tn]; Student[^hʃtu'dent]/[^hstu'dent]
 7) abpassen[^hʌpasn]/[^hapasn]; Aussage[^hʌusza:gə]/[^hʌusa:gə]

이에 비해 과잉발음은 가능한 한 개별 문자의 발음에 충실하게 실제 사용을 고려하지 않고 발음하는 것으로 발음에 있어서 최고의 명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따라서 과잉발음은 받아쓰기나 주위가 시끄러울 때, 화자와 청자가 서로 멀리 떨어져서 육성으로 대화할 때,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노래를 할 때 이루어진다. 특별히 두드러진 과잉발음의 예는 다음과 같다(Duden, 1974²: 68):

- 1) 비강세 음절 모음 [ə] 대신 [e/e:/ɛ]로 발음하는 것
 : Atem[^hʌ:tɛm], großes[^hgro:sɛs], mache[^hmaxɛ]/[^hmaxɛ], redet [ʀe:det]
- 2) 어간형성 자음 m, n, l과 [ɐ]를 각각 [ɛm], [ɛn], [ɛl] 그리고 [ɛr]로 발음하는 것
 : bösem [b^hø:zɛm], machen [maxɛn], Schlüssel [ʃl^hʏsɛl], Wasser [vasɛr]
- 3) 비어간형성 모음 [ɐ] 대신 [r]로 발음하는 것
 : erfahr! [ɛrfa:r], hörst [h^hø:rst]
- 4) p, t, k를 늘 강한 기식음으로 발음하는 것
 : abbrennen [ap^hrɛnɛn], Raddampfer [ra:t^hdampfɛr], weggehen [vek^hge:hɛn]
- 5) 모음 사이의 h도 늘 h로 발음한다
 : Ehe[^he:he(:)]/[^he:he], gehen[^hge:hɛn], ziechest[^htʃi:hɛst]

1990년 출판된 Duden 발음사전 3판의 서문은 보편적인 구어의 사용규범을 규정함으로써 통일적인 발음을 규정하는 것은 표준독어의 구어형태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 규범화를 통해 전체 독어사용지역과 모든 독어사용 계층들은 온전한 의사소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언명하고 있다. 아울러 여기서 새삼스럽게 언급된 소위 표준발음에 대한 발음규범은 다음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Duden, 1990³: 5):

- 1) 표준발음은 초지역적 특성을 지닌다. 즉 지역적 내지 방언적 발음을 배제한다.

- 2) 표준발음은 통일성을 추구하여 가능한 한 예외적인 것을 배제하거나 최소화 한다.
- 3) 표준발음은 문자에 근접해 있다. 따라서 발음기호를 통해 광범위하게 규정된다.
- 4) 표준발음은 명확하다. 즉, 소통발음 보다 강한 발음을 지닌다.
- 5) 표준발음은 언어현실에 가까운 사용규범을 따르고, 더 이상 과장되게 느껴지는 무대발음을 지향하지 않는다.

1974년의 2판과 비교해 볼 때, 발음과 관련하여 이전에 볼 수 없었던 3판 서문의 당당함은 1990년이라는 시점이 지나는 역사적 의미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적어도 1974년의 Duden은, 당시 독일이 민족, 영토, 그리고 민족어라는 차원에서 분단 상황 속에 있었으므로, 정서법 사전이건 아니면 발음사전이건 최소한의 변경만이—그것도 상호 이질화를 촉진시키지 않는 범위에서—암암리에 추구 또는 허용되고 있었다. 이것은 동서독 모두가 당시 상호 이질적인 언어 상황을 겪으면서도 통일 이후를 위하여 1901년의 정서법 규정을 가급적 훼손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에서 명백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1990년은 달랐다. 이때는 독일 역사상 최초로 민주적 통일국가가 독일민족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시기였으며, 민족어의 차원에서도 Duden을 중심으로 새로운 통일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기였다. —그 결과 통일 후 1991년 Duden 정서법 사전 20판이 출판되었다. 따라서 발음사전 3판 서문에서의 진술은 오히려 민족어 내지 정서법이라는 차원에서 누렸던 Duden 편집진의 권한에 상응하는 의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제 Duden은 독일민족어의 발음 부분에 대해서도 권위 있는 지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표명한 것으로, 이를 통해 Duden은 서법과 발음에 있어서 명실상부한 독어의 표준이라는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고 판단한다.

한편 3)에서 표준발음이 문자에 근접해 있다는 언급은 표준발음이 기록된 문자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통일 후 급진전한 정서법 개정 논의에서 소위 어원원칙이 새로운 정서법 원칙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이 있다. 어원원칙에 의하면 언어사용에 있어서 특히 발음상 불필요하여 어원의 유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단어는 어원을 밝혀 표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문자를 중요하게 고려한 발음규정은 불가피하다

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이번에는 1974년과 달리 5)를 통해 무대발음과의 결연한 단절을 분명히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언어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 표준발음은 방언이나 소통발음을 사용하지 않는 예를 들어 강연이나 토론, 학교, 무대,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과 같이 많은 청중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언어상황에서 전독일적 통용성을 지녀야 하며,⁵⁾ 방언적 색채를 지니거나 소통발음이 화자의 결함으로 인해 올바른 의사소통에 이르지 못하거나 본래 전달하고자 하던 내용에 오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독어를 외국어로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매우 중요한 지침으로서 작용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동안 외국인의 입장에서 독어를 올바르게 발음하는 것에 대해 많은 혼란을 겪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외국인은 독어를 배울 때 소위 과잉발음과 소통발음 사이를 오가면서 대화 상대가 독일인인 경우 그의 자의적 판단과 교정에 의존하여 발음을 익혀야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또한 우리의 독어교육에서도 소통발음에 익숙한 교육자는 이 발음을 학생들에게 숙지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학생들의 과잉발음은 곧잘 미숙한 발음으로 교정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제 적어도 교육현장에서는 소통발음과 과잉발음 사이에서 규정되어있는 표준발음을 발음에 대한 지침으로 이용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Duden 발음사전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최근의 4판(2000년)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4판이 표준발음의 규정에 있어서 3판(1990년)과 동일하여 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고 오로지 새로운 어휘에 대한 발음목록이 추가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어 표준발음은 당분간 1990년의 3판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독어의 표준발음에 관한 한 (고전적인) 극장이 그동안 통일적인 발음의 담당자로서 누리던 지위를 라디오나 텔레비전에게 넘겨주게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발음 교육을 받은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자가 사용하는 새로운 통일적 발음이 표준발음으로 간주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Duden, 1990: 29).

4. 맺음말

그동안 문어에서 뿐만 아니라 구어의 차원에서도 통일적 표준어가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 규범들은 Siebs의 저서에 규정되어 있다는 의식이 아주 일반적으로 퍼져 있었다. 이것은 오랫동안 Siebs의 규정이 독어발음에 대한 유일한 규범이었다는 사실 이외에도 무대에서 상연되는 작품을 암암리에 피테와 쉴러로 대표되는 독일의 문화적 자긍심과 관련시킴으로써 유럽의 다른 나라와 달리 무대발음의 의미를 각별하게 취급하려는 의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제 표준 독어발음에 대한 규범화 작업은 Siebs로부터 Duden의 발음사전으로 적시에 그리고 적절하게 전이되고 있음이 명백하다. 특히 Duden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대발음과 표준발음, 그리고 소통발음과 과잉발음에 대한 구분은 그동안 다양한 모습을 지녔던 여러 독어발음을 하나의 통일적 발음으로 규범화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서법 규정을 통해 문어 차원의 언어형태를 통일화하려는 오랜 시도는 표준발음에 대한 규정을 통해 구어 차원을 보완함으로써 통일적 표준독어라는 궁극적 목표에 보다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십 년 동안 표준발음이라는 영역 안에서 발음상의 여러 형식 단계를 기술하고 규정하려는 시도를 지속해 왔으나 지금까지도 여전히 아직 통일적이고 눈에 띄는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Duden, 19903: 30)는 Duden의 언급은—언어에 대한 온갖 규범화 작업이 그러하듯—과연 규정을 통해 인위적으로 발음의 표준화를 강제하려는 시도 자체가 필요하고도 가능한 작업인가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야기하는 것 같다.

참고문헌

- 강동일 (역) (1995): *문자의 역사*, 서울.
 정동규 (1997): *독어정서법의 형성과 발전*, 서울.
 정완식 (1999): 독일어의 표준발음과 비표준발음 연구, DaF 4, 한국독어교육학회, 250-282.

- 허창운 (1983): 현대독일어의 표준발음과 무대발음, 독일문학, Vol.29, No.4, 한국독어독문학회, 239-254.
- Asher, R.E./ L.M.Y. Simpson,(eds.) (1993):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10 Vols. Pergamon.
- Assmann, A. (1983): Schriftliche Folklore. Zur Entstehung und Funktion eines Überlieferungstyps, in: A.Assmann et al.(hrsg.). *Schrift und Gedächtnis. Beiträge zur Archäologie der literarischen Kommunikation*, Frankfurt, 175-193.
- Bloomfield, L. (1933): *Language*, New York.
- Duden Aussprachewörterbuch*(1962¹, 1974², 1990³, 2000⁴), Mannheim/Wien/Zürich.
- Nerius, D. (1992): Position und Rolle von Konrad Duden in der Entwicklung der deutschen Orthographie, in: Nerius,D./J.Scharnhorst(hrsg.), *Studien zur Geschichte der deutschen Orthographie*, Zürich/NY, 239-276.
- Sauer, W.W. (1988): *Der Duden. Geschichte und Aktualität eines Volkswörterbuch*, Stuttgart.
- Siebs, Th. (1898): *Deutsche Bühnenaussprache*; H. de Boor/ H.Moser/Ch.Winkler (hrsg.), Berlin, 1969.
- Siebs *Deutsche Hochsprache*(1961¹⁸), H. de Boor/P. Daniels (hrsg.), Berlin.
- Stock, E. (2001): Die Standardaussprache des Deutschen, in: G.Helbig/L.Götzl/G.Henrici/H.-J. Krumm(hrsg.), *Deutsch als Fremdsprache*(= HSK 19.1), Berlin/NY, 162-174.

Zusammenfassung

Zur Standardaussprache des heutigen Deutsch

Chung, Dong Gyu(Kyungwon Univ.)

Obwohl der Begriff Standardaussprache noch umstritten ist, werden mit ihm musterhafte Ausspracheformen beschrieben, deren Akzeptanzareal weit über dasjenige dialektaler und umgangssprachlicher Ausspracheformen hinausreicht, die beim Sprechen der Standardsprache in öffentlichen Bereichen verwendet werden, und die viele Sprachbenutzer emotional positiv bewerten.(Stock, 2001: 162) Seit Ende des 19. Jhs. stehen verschiedene Versuche, die

einheitlichen Ausspracheformen für unterschiedliche Kommunikationsbereiche zu normieren. Eine umfangreiche und verantwortungsvolle Antwort hat Duden Aussprachewörterbuch gebracht. In der deutschen Sprache gibt es eine ganze Reihe landschaftlich und sozialisch bedingter Unterschiede in der Aussprache:

1. Genormte Lautung - Standardlautung, Bühnenaussprache
2. Ungenormte Lautung - Umgangslautung, Überlautung

Dabei ist die Bühnenaussprache heute als übersteigert empfunden. Und die Umgangslautung ist weniger deutlich und schriftnah als die Standardlautung, die Überlautung deutlicher und schriftnäher als die Standardlautung.

Von diesen aussprachlichen Situationen ausgehend ist hier untersucht worden, welche aussprachliche Variante eine Richtschnur in der Aussprache für die Ausländer sein soll, die Deutsch als Fremdsprache lernen. Die Standardlautung oder -aussprache ist eine der Möglichkeiten, das Lautsystem des heutigen Deutsch zu realisieren.

[검색어] 표준발음, 무대발음, 소통발음, 과잉발음
Standardaussprache, Bühnenaussprache,
Umgangslautung, Überlautung.

정동규

461-70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산 65
경원대학교 인문대학 독문과
dgchung@mail.kyungwon.ac.kr